

# '잘나가는 수입차' 지난달 신규등록대수 2만2266대

### 수입자동차협회, 지난해 동기 比 15% 늘어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0% 증가한 2만2266대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6일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만2266대, 1~11월 누적등록대수는 20만5162대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11월 신규등록대수는 10월보다 32.3%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BMW(6827대), 메르세데스-벤츠(6296대)가 가장 많이 판매되며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뒤를 이어 ▲토요타 1345대 ▲렉서스 1113대 ▲랜드로버 1052대 ▲

혼다 854대 ▲미니 819대 ▲포드 795대 ▲크라이슬러 713대 ▲볼보 679대 ▲닛산 460대 ▲푸조 312대 ▲재규어 279대 ▲인피니티 219대 ▲캐딜락 215대 ▲포르세 170대 ▲시트로엥 49대 ▲아우디 33대 ▲벤츠 29대 ▲롤스로이스 7대 등이 뒤를 이었다.

11월에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 모델은 베스트셀링 모델은 BMW 520d(1723대),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MATIC(1034대), BMW 520d xDrive(818대) 순이었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이 1만

3821대(62.1%)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뒤를 이어 ▲2000cc~3000cc 미만 6655대(29.9%) ▲3000cc~4000cc 미만 1417대(6.4%) ▲4000cc 이상 350대(1.6%) 순이었다. 전기차는 23대(0.1%) 판매됐다.

국가별로는 유럽 차량이 1만6552대(74.3%)로 가장 큰 인기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일본 3991대(17.9%) ▲미국 1723대(7.7%)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602대(47.6%), 디젤 9226대(41.4%), 하이브리드 2415대(10.8%), 전기 23대(0.1%) 순이었다.

11월에 판매된 수입승용차 중 개인구매는 1만4335대로 64.4%를 차지했고 법인구매가 7931대로 35.6%였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4235대(29.5%) ▲서울 3265대(22.8%) ▲부산 994(6.9%) 순이었다. 법인 구매의 경우 ▲인천 2285대(28.8%), 부산 2149대(27.1%), 대구 1332대(16.8%)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부회장은 "11월 수입차 시장은 원활한 물량 확보, 적극적인 프로모션, 신차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월까지 누적 등록대수 21만2660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다.

뉴스스

## '통패딩' 열풍

1020세대 5명 중 3명 "이미 가지고 있거나 살 예정" "보온성 때문" 59.4% "유행 뒤쳐지는 것 같아" 5.9%

최근 '통패딩' 열풍이 거센 가운데, 1020세대 5명 중 2명은 이미 통패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통패딩을 구입할 예정이라는 응답자도 23.1%에 달했다.

그러나 1020세대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유행 소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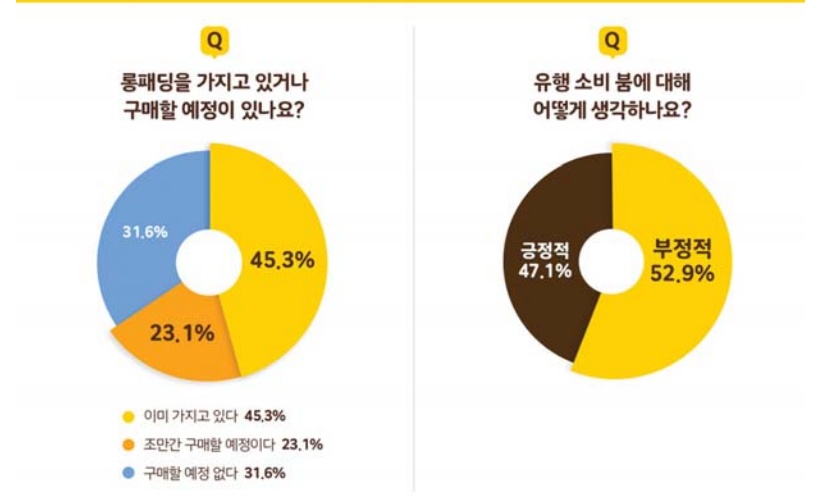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영)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1020 회원 3897명을 대상으로 통패딩과 유행 소비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0세대 응답자의 45.3%가 이미 통패딩을 구매했으며, 조만간 구매 할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3.1%나 됐다.

이들은 통패딩을 구매하는 이유로 "보온성(59.4%)과 "편리성(32.8%)을 꼽았다. 기능적인 이유 외에는 "없으면 유행에 뒤쳐지는 느낌이 들어서(5.9%)",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모델이라서(1.2%)", "없으면 무리에서 따돌림 당할까 봐(0.6%)" 등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없으면 유행에 뒤쳐지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0대(52.6%)가 20대(47.4%)보다 5.2%p 높았다. 10대가 20대보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통패딩과 같이 1020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물건에 대한 관심은 상당수 구매로 이어졌다. 1020세대 10명 중 6명(64.8%)이 유행 때

'통패딩 열풍'...1020세대 10명 중 절반 유행 소비법에 대해 부정적



에 물건을 산 적 "있다"고 답했으며, 유행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한 적 "있다"는 응답자도 20.7%를 차지했다.

그러나 1020세대 대다수는 유행을 따르면서도, '통패딩 열풍' 등 유행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 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행 소비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47.1%가 "긍정적"이라 답했다.

유행 소비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1위는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40.1%)"라고 말했다. 이어 "매번 바뀌는 유행

을 좇기엔 비용이 부담돼서(25.4%)", "상술 같아서(15.9%)", "어쩔 수 없이 유행을 쫓는 경우가 많아져서(15.7%)",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어 혼란스러워서(2.9%)" 순으로 답했다.

반대로 유행 소비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1위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 생각해서(58.8%)"였다. 다음으로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서(20.6%)",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15.6%)", "유행을 따름으로써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5%)" 등의 답변이 있었다.

뉴스스

## 아쿠아플라넷 여수, 바다거북 무료 학습교실

### 26일 오후2시 신청자 가족 대상 바다거북 해양생태계 보존 노력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오는 26일 어린이 바다거북 학습교실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6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는 아쿠아플라넷 여수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좀 더 친숙하게 해양 생물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바다거북 학습교실'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2014년부터 바다거북 중 보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3년 만에 국내 최초로 바다거북의 실내 인공부화에 성공해 115마리가 태어나는 성과를 봤다. 지난 9월 해양수산부와

함께 구조 치료에 성공한 바다거북 3마리와 인공부화를 통해 태어난 바다거북 어린 개체 80마리를 제주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방류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과 연계해 '어린이 바다거북 학습교실'도 바다거북의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바다거북 학습교실'은 26일 오후 2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쿠아리스트의 설명과 함께 바다거북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바다거북 인공부화장 견학, 아기 바다거북 먹이주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참가 희망 가족은 아쿠아플라넷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1일부터 17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8일에 발표한다. 선정된 가



작은 바다거북 학습지와 활용품 등의 교육 관련 기자재도 함께 제공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 기아차 '레이', 6년만에 확 바뀐다

### 깔끔해진 디자인에 허니콤 패턴으로 독특함 더해



기아자동차 레이가 2011년에 출시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변경에 나섰다.

기아차는 6일 레이 상품성 개선 모델의 렌더링을 공개했다. 신차급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새로운 레이

는 기존의 젊고 유니크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모던하게 바뀐 외형에 와이드 허니콤 패턴으로 독특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모델의 전면부 중앙에 있던 라디에이터 그릴을 헤드 램프와 같은 높이로 올리고 바디와 동일

한 컬러로 바꿔 산뜻하고 깔끔한 인상을 부여했다.

단색의 그릴에는 엠블럼을 중심으로 와이드 허니콤(벌집모양) 패턴의 음각 조형을 배치했다. 기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던 자

리에는 가로로 넓은 직사각 형태의 인테이크 그릴을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 배치하고, 새로운 헤드램프에 가로 직선이 뚜렷하게 드러난 주간 주행등(DRL)을 적용해 전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

또 프론트 범퍼 양끝단에 위치한 프로그램플을 세로로 배치해 전면부에 변화를 주며 시선을 유도했다.

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면서도 전면부의 디자인 요소를 동일하게 활용해 앞모습과 뒷모습의 일체감을 부여했다.

새로운 리어램프는 기존의 세로 형에서 C자 형태의 가로형으로 바뀌고 테일게이트 가니쉬와 연결돼 하나의 긴 바 형태가 됐다.

기아차는 상품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의 레이를 이번 달 중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더욱 모던하고 깔끔해진 디자인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더해 레이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